

이슈브리프 449호
(2023. 7.14)

북한의 ‘화성-18’형 시험발사, 의도와 향후 전망

최용환 통일미래연구실
김중원 통일미래연구실

제449호



국문초록

북한이 또다시 신형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자체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발사는 미중관계에 미묘한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북한은 나토 정상회의 및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맞추어 ICBM을 발사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의 즉각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미중관계 변화 움직임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확고하게 붙잡아두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ICBM 시험발사 직전 북한은 연이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정찰활동을 문제 삼았다. 미국의 대북 정찰이 새로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해도 아닌 공해에서의 정찰활동을 비난한 것이다. 이는 향후 북한도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찰활동 비난을 통해 향후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북한은 ICBM 발사를 통해 미국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북중·북러 관계 강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핵전략의 근본적 취약성 극복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 문제는 북한이 냉전적 갈등구조에 적극 편승하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따른 군사적 대치국면 장기화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북한의 장기전략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어: 화성-18형, ICBM, 북한도발, 신냉전, 정찰기

북한은 7월 12일 신형 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올해에만 4번 이루어졌으며, ‘화성-18’형 시험발사는 지난 4월 13일 이후 두 번째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한이 왜 이 시기에 ICBM 시험발사를 강행했는지, 왜 미국 정찰활동을 명분으로 삼았는지, 왜 북한이 선택한 수단이 ‘화성-18’형이었는지 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향후 전망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지금인가?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 7월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여기에는 한국은 물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도 참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하와이에서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인 트라이차드(TRICHOD)가 진행되고 있었다.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미일은 물론 나토 차원의 즉각적 반응이 나올 것이 분명한 시점이었다. 실제 나토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를 촉구했다. 한미일 합참의장들 역시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고 3국 협력을 재확인했다.

조금 시야를 넓혀보면 최근 2~3개월 사이 미중 관계에 미묘한 변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었다. 예컨대 2023년 6월 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2018년 10월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었으며,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였다. 이어서 7월 초에는 재닛 앨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찾았다. 뿐만 아니라 각각 9월과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G-20정상회의와 APEC정상회의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었다.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적 속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움직임만으로 양국관

계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제한적이거나 미중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미국이 미중 경쟁을 인정하면서도 기후변화, 북핵문제 등은 미중 협력이 가능한 이슈라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갈등구조에 편승하려는 대외전략을 구사해온 북한에게 미중관계 변화 움직임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적극적인 도발을 통해서 미국의 대서양 동맹인 나토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이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유도하여, 자신의 동맹인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화성-18’형을 발사하기 하루 전인 7월 11일은 북중우호조약 체결 6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탈냉전 이후 북중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북중우호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이번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미중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한 견제구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북한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갈등구조 강화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와 같은 도발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 통상적 정찰활동을 명분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시험발사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연계되어 있다. 북한의 고체연료 엔진 기반 ‘화성-18’형 ICBM은 지난 4월 처음 발사한 신형 미사일이기 때문에 추가 시험이 필요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에서 1단계는 표준 탄도 비행방식을 2·3단계는 고각비행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즉 단순 고각발사가 아닌 단계별 발사 각도 조절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위성발사 목적의 우주발사체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는 ICBM 발사를 통해 추가 위성 발사를 위한 데이터 축적 시도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통상적인 미군의 정찰활동을 새삼스럽

게 비난하면서 ICBM 발사로 대응한 것은 향후 북한의 추가 군사 정찰위성 발사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ICBM 시험발사 이전에 북한은 연이은 담화를 통해 미국 정찰기들이 자신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영해 상공이 아닌 EEZ 상공은 공해이기 때문에 북한의 영공을 침범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EEZ를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처럼 인식하고 있거나, 향후 북한판 ADIZ 선포를 위한 수순일 수 있다. 즉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담화와 도발은 미군 정찰기들의 활동을 최대한 외곽으로 밀어내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 이자, 이를 명분으로 향후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이번 ICBM 시험발사는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구겨진 체면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자, 북한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발사 실패를 인정하는 보도를 내보냈으며, 6월 중순 개최된 당 중앙위 제8기 8차 전원회의에서도 이를 여과 없이 언급 하였다. 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이자, 오랫동안 정권 차원에서 준비하고 공언해온 사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ICBM 발사를 통해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을 것이다.

왜, ICBM인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은 미국 대상의 전략핵무기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술핵무기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22년 9월에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공세적 핵독트린을 공식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항과 항구, 군사지휘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핵공격 훈련을 공개하는 등 위협의 수위를 높여왔다.

이처럼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의 핵전략에는 상당한 취약성이 존재한다. 즉 북한은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선제공격은 미국의 강력한 핵보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 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강력한 확장억지를 언급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고,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핵능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선제공격으로 미국의 핵 보복능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은 없다. 즉, 핵능력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북한과 같은 상대적 약소국의 핵 선제공격은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핵 사용 여부에 대한 고민을 없애버려서 자신의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태롭게 만든다. 설사 그것이 저위력의 전술핵무기라고 하더라도, 핵무기의 특성상 선제공격에 사용한다면 막대한 핵보복공격을 감수해야 한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는 억지용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선제공격용이 되기는 어렵다.

한미와 비교하여 재래식전력에서 열세인 북한으로서는 핵사용 문턱을 낮추고, 자포자기식 핵공격도 가능할 것임을 위협하여 억지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생존성이 우수한 무기체계를 집중개발하여, 상대방의 공격 이후에도 핵보복이 가능할 것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의 모든 ICBM이 이동식발사대(TEL)를 사용하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북한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전략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북한의 또 다른 선택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우방을

활용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중러와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여 이들을 확실하게 연루시킬 수 있다면, 북한이 독자적으로 가질 수 없는 확증보복 능력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의 ICBM 시험발사가 ‘정당방위권’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이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변해왔다. 이번 ‘화성-18’형 시험발사 보도에서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NCG)을 ‘한미일 3자 핵동맹’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인다.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을 자극하여 역설적으로 중러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향후 전망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미중·미러 관계가 악화되는 국면에서 북한은 북중·북러 관계를 강화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갈등구조 강화가 자신들에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2022년 9월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긴장격화된 정세가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에 훌륭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명분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이번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미중관계 변화 움직임에 대한 견제구이자, 향후 냉전적 갈등구조 고착화를 위한 도발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수위의 문제이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 되었다. 아마도 향후 북한의 도발은 미국이나 일본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방식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

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도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미사일 시험발사나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시도는 물론이고 근접 위협비행 등 보다 적극적 도발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연계한 군사적 도발 차원에서 DMZ 내에서 직접적 군사 행동을 시도하거나 김여정이 공언했던 것처럼 미군 정찰기에 대한 격추 시도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우리의 대응 조건과 방식을 분명히하여 추가도발 명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지역 공동의 의제로 만들어내는 등 냉전적 갈등구조 극복을 위한 우리의 대응 전략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